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19년 10월)

<b>일시</b>	2019. 10. 17. 목. 오후 5시	<b>장소</b>	대회의실
<b>참석자</b>	<b>위원회</b>	구제길, 김요수, 김태진, 김형순, 류한호, 박미자, 이나진, 이철우, 임철원, 조숙경, 최선희(11명)	
	<b>회사</b>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한신구 보도국장,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안승현 기획심의부장(5명)	

### ■ 회의 내용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15명 중에서 11명 참석했고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다. 최영태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기에 최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다.
- 최선희 부위원장 : -지난달 못 뵈신 위원님들도 나와 반갑다. 위원장님이 독일 출장 건으로 저에게 미리 부탁하셨다. 주요 업무보고부터 시작하겠다.
-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 -텔레비전 개편이 이번 주 월요일 10월 14일부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본사가 월화드라마를 폐지하면서, 여러 가지 예능과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배치가 되었다. 로컬 부분은 <핑크피쉬>가 화요일에 방송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인 오늘 저녁에 방송하고 <문화콘서트 난장>도 목요일 저녁에 방송한다. 나머지는 편성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지질공원 1주년 기념 관련해서 <세계지질공원> 다큐 2부가 10월 26일 오전 11시에 방송하고, 제1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가 10월 27일 일요일 8시부터 10시 40분까지 광주, 목포, 여수가 한꺼번에 공동 생방송을 한다. 본사에서 헬기, 오토바이 중계차 3대, 이동 중계차 2대를 동원해서 입체중계를 하게 된다. 따라서 그날 예정인 시청자위원회는 1주 더 연기해 11월 3일날 방송하도록 하겠다. 특집 프로그램 <농업이 미래다> 16부작이 진행되고 있고, <포구만리> UHD는 11월 중에 방송할 예정이다. 16개 지역MBC 공동 자체 특강을 녹화해서 11주 연속 편성할 예정이다. <아시안 탐 밴드>는 참가국 대표자 협약을 9월 25일 광주에서 했고, 제1차 참가국 워크숍은 서울에서 11월 20일부터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총장축제, 마한문화제, 굿모닝 양림, 화순국향축제, 학생의 날 기념 청년학생축전이 예정돼 있다.
- 한신구 보도국장 : -창사 55주년 특집토론이 한창 방송 중이다. 1부, 2부는 에너지와 인공지능 방송이고 3부는 광주 일자리 관련해서 나가게 된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 부분에서 4월부터 준비를 해왔고 마무리되는 과정이다.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으로 부산MBC와 공동으로 토론을 제작했고, 이번 주 토요일 10시 30분에 편성이 된다. 보도국에서 부산MBC와는 공동으로 처음 제작한다. 그에 앞서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그리고 9월 추석 주변에 태풍 링링, 타파, 미탁 등 3개의 태풍이 왔던 부분 저희는 피해가 없도록 집중보도를 했고, 국회 국감이 끝났는데 여러 가지 저희 지역과 관계되는 한전 국감, 한전공대 취재를 했다. 올해 전남대병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보도를 했

다. 오늘 광주시의회 시정질의가 마지막 날인데 오늘 녹화를 해서 내일 오전, 오후에 걸쳐서 4시간 동안 방송을 하게 된다. 11월 주요업무로는 저번 시청자위원회 때 지적해 주셨던 뉴스 여성 앵커 신규 채용을 다음 주 초에 들어가서 11월 중에는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4.15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패스트랙 처리 여부라든가, 그에 따른 지역정치권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다. 5.18 40주년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2부작을 준비 중이고 1부는 마무리 취재가 되어가고 있다. 취재 중간에 짬짬이 내서 하는 것이라 부족한 인력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응원해달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21일부터 공사가 본격 시작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도하겠다.

-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 -경영과 행사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창사 55주년 기념식이 10월 8일 공개홀에서 있었다. 아울러 공로, 면려 관련해서 30개 분야 50여 명 시상이 있었다. 그리고 주요 행사로 제16회 빛고을 나눔장터가 10월 19일날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에서 했다. 광주MBC 명사 기증품 경매전이 진행되는데 수익금 일부는 해마다 해왔듯이 난치병 어린이 돕기 기금으로 사용한다. 제1회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가 10월 27일에 있는데 한국가사문학관부터 백아산 자연휴양림 코스로 라이브 중계가 예정되어있고 약 2천 5백 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형순 위원 : -최근 들어 <뉴스투데이>나 <오매 전라도>, 홈페이지 등을 훑어보니까 그동안 시청자위원 분들이 개진했던 의견들이 신속히 반영되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오늘 아침 <뉴스투데이>를 보니 외국인 밀집 주거지역에 중대범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광주도 외국인 밀집 주거지역이 최근 많이 생기자 보니까 중대범죄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최근 들어서는 광주에서 보이스포싱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일반인들이 보이스포싱을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얼마 전에는 광주 경찰서에서 2~3건 정도를 철도역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당일 검거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요즘은 남녀노소 지식 수준에 관계 없이 보이스포싱 피해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런 것들은 계몽을 많이 해 주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한다.
- 최선희 부위원장 : -시청자위원회 의견이 발 빠르게 반영이 됐다고 말씀해주셨다. 그 외에도 보이스포싱 관련한 내용까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 박미자 위원 : -뉴스 내용 중에서 한 번씩 느껴지는 게 있다. 뉴스라는 게 새로운 소식을 전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스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거나 불쾌한 내용이 있다. 특히 살인이라는 범죄정보를 뉴스로 들을 때, 살인방법을 너무 적나라하게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그 살인방법을 알아서 무슨 도움이 될까 한다. 그걸 도용해서 따라 하는 것도 아니다. 시민들은 왜 살인이 일어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고 고민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인이 되었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된다. 이런 뉴스를 볼 때 시청자는 무방비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시청자는 무언의 폭력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뉴스의 내용을 채울 때 시청자 입장을 생각해 주고 특히 저녁이나 아침 시간에 아이들도 같이 보는 경우, 늦은 시간이 아니고는 뉴스의 질적인 내용도 좀 더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창사특집토론 진행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이뤄졌는데 딱 두 마디만 하고 싶다. 토론이란 것은 찬반이 있어야 토론이 되지 않나.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이 AI 4차산업에 대한 광주의 방향, 그리고 광주의 시장이 리더십을 통해서 먹거리를 잘 가지고 왔다는 그런 표현 등 긍정적인 내용만 채워진 시간이라고 느꼈다. 시장님 실적 위주의 소개는 토론의 의미보다 개인의 치적에 대한 내용 인지라 불필요하지 않았나. 나머지 세 분 전문가의 입장과 한국기술원 총장, 정부의 입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AI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 제시한 방향이나 시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잘 얘기해줬다. 이런 부분들은 토론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잘 이해를 하셨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토론이 긍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AI산업이 광주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 부분, 그리고 그 산업이 잘 정착하기까지 걸림돌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멘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청자가 만드는 TV>는 시청자가 만들기 때문에 MBC와는 관계가 없다는 멘트가 있다. 하지만 MBC에서 나오는 프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시청자가 만드는 TV> 프로 중에 정말 시청자의 감성으로 만든 프로, 코너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 공영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제작이 된다면 좋겠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꿈으로 인해 현실에 직면하는 고통 등 이런 내용들, 단지 그 프로그램 하나만 봐서 느껴지는 것이지만, 정상인 못지않게 느껴지는 장애인의 감성, 생활, 환경, 삶도 무시하지 않고 우리 정상인들과 함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최선희 부위원장 : -살인사건에 대한 보도와 <시사본색>의 AI특집에 관한 건, <시청자가 만드는 TV>에 관한 건 등 세 건을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다.

○ 이나건 위원 : -돈도 사람도 수도권으로라는 내용과 광주, 전남 R&D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았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산업적 쏠림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면서 네트워킹 부족이나 현안을 진단하는 보도 내용이 좋았다. 더불어서 광주 전남 R&D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연달아 나왔다. 두 보도 내용이 사실상 4일 정도 격차를 두고 나왔는데 비슷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연계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개인적으로 이걸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가 기업 수도 많지 않고 스타트업도 보면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만큼 풀이 좁다는 뜻이겠다. 그러다 보니 R&D도 적고 젊은 층들도 다 수도권으로 가는 게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까지 봤으면 좋겠다.

-광주역, 전남대 주변 도시 탄력에 관한 내용도 ktX 정차 문제라든지 이슈를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잘 다뤄주셔서 좋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정진석 평론가는 부동산 전문가다 보니 건설과 관련된 내용만 많이 언급이 됐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이 토건산업이 아니라 융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도 같이 언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아무래도 현 정부 들어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름만 바꾼 토건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다각도로 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최선희 부위원장 : -R&D에 관해 광주 전남이 연속 5년 동안 최하위를 마킹하고 있는 심각성을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한다는 내용과 광주역, 전남대 주변 도시재생사업

에 대한 탄력에 관한 부분이다. 사실 전 지자체에 도시재생이라는 뉴딜사업으로 많은 기금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그 성과와 평가를 다 완료하고 받을 게 아니라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할 내용 같아서 그 점도 유념해서 계속 다뤄주길 부탁한다.

- 류한호 위원 : -김형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홈페이지를 보면 전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부담이 없다. 참 편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서 이게 MBC의 탄력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저는 광주MBC 창사 55주년 특집 프로그램의 다양성, 집중성을 보면서 인상 깊게 느꼈다. 그중에서도 <광주전남 대항해의 시작> 시리즈를 몇 차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게 에너지산업이었고, 그리고 AI산업, 다음엔 광주형일자리를 할 예정이다. 이런 문제들이 광주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광주의 삶의 방식에 대한 중요한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이슈를 발굴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이와 같은 일들이 시행 초기 단계에서 흐트러짐 없이 제대로 된 시행 초석을 놓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이슈를 다뤄준 것이 지역의 여론형성을 선도하는 매체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쪽 보니까 지역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핵심적인 포인트가 뭔가에 대한 지적이 있고, 준비상태는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미리 살펴보고 대응방법을 취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핑크피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송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보통 1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핑크피쉬>의 경우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상당히 대단한 게 있다. 어쩌면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어서 방송대상도 수상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한번 보고 창고에 저장하지 말고 재방송을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내년에 또 방영했으면 좋겠다. 좋은 프로그램은 자체적인 내부 결정에 의해서 좀 더 시청자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청자의 인식도 개선해주고 지역이나 음식에 대한 긍지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봤다.

- 최선희 부위원장 : -<광주전남 대항해의 시작>이 한전 외에 16개 공기업이 내려와 있는데, 에너지산업과 광주형일자리, AI산업이 하나의 융복합적 체계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요약적 말씀이었던 것 같다. 그 외에도 <핑크피쉬>가 쉽게 보면 하나의 물체에 준하지만 지역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얽힌 스토리가 많고 이 스토리텔링을 마케팅화 하면 상당히 지역이 세계를 커버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 가야 하는 내용이라 걸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다.

- 임철원 위원 : -앞에서 <광주전남 대항해의 시작>을 언급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저희 회사와 관련 있고 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다. 1, 2차 모두 관심 있게 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이고 먹거리일 수 있는데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경제지도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는데 획기적이고 시의적절한 주제였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분들이 도지사, 한전 사장 등 그 분야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시장님

과 그 분야 최고의 석학 교수님, 산업에서 하고 있는 분, 정부 정책 결정자 등 다방면에서 나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1차에서 주로 글로벌 에너지산업 수도를 주제로 얘기가 됐는데 한편으로는 1차에서는 너무 많은 주제가 왔다 갔다 했다. 에너지 신산업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신재생, 한전공대, 에너지밸리, 수소에너지 하다 보니 매치가 잘 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AI,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산업을 했는데 심도 있고 통찰력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을 통해 광주 전남지역 3대 전략산업에 대한 이해와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토론을 시작했으니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면서 방심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토론이 듣고 나서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아 그런 게 있었지 하지만 지역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취재든 심층취재든 해서 토론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청자들도 보면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 또 이걸로 인한 파급효과, 미래 비전까지도 담아서 해주면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겠다는 기대를 한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는 순천대 박기영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나라 갯벌이 내년엔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관련된 말씀을 했다. 빨썬다는 말의 의미까지 줘서 새롭고 재미있게 들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터뷰가 계속 진행되면서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 지루하게 느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방송을 내보낼 때 말하는 사람 기준보다는 듣는 사람 기준으로 해주면 좋겠다. 말하는 분은 본인이 하는 얘길 계속하고 싶은데 청취자는 들으면서 지루하고 나중에 초점을 잃어버릴 소지가 있다. 중요한 문제는 간결하게 이끌어가는 게 청취자에 대한 배려다. 그런 부분은 한 번쯤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최선희 부위원장 : -창사특집에 대한 토론 3부작이 뜨겁게 대두되고 다뤄준 부분이어서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 한전 역시 주도적 역할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추려서 여러 다양한 부분을 심도 있게 말씀해주셨다. 라디오 부분까지 잘 다뤄주셨다.
- 김요수 위원 : -10월 7일 <오매 전라도>를 눈여겨봤다. 이번에 검찰 개혁에 대해 서울로 외치러 가는 사람들에 대해 동행 취재를 하는 부분이 꽤 괜찮았다. 현장에 가서는 다른 지역 사람들 의견도 들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제작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제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대목에서는 왜 동행 취재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도된 뉴스를 보여준다던가 신문의 한 면을 3, 4초라도 보여주고 해서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집어넣었으면 신뢰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걸 진행하는 분께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보여주는 것 같다는 부정확하고 뚜렷하지 않은 어투를 썼는데 방송용어는 우리가 실생활에 금방 따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감이 났다,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표현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날 간곶골 영화제 촬영현장에 생방송으로 직접 가서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촬영을 간 분과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시청자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막으로 해주면 좋겠다. 간곶골 영화제 촬영한 작품이 19일 날 개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MBC 유튜브에는 그날 방송분이 올라가 있다. 이 영화의 메이킹필름이나 예고편, 하이라이트 같은 걸 유튜브에 올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신안 천사버스 내용이 좋아서 뉴스보다 더 뉴스다운 꼭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 중에 노래방 택시 꼭지가 있었다. 소재가 독특하고 신선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도 광주 전남 교통사고가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좁은 택시 안에서 노래방 운영을 했을 때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소재 선정할 때 신중해야 할 것 같다.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본방사수를 해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 왜 그럴까. 여러 까닭이 있겠지만 뒤집어서 보면 본방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을 보는 트렌드가 옛날에는 방송시간에 맞춰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트렌드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바뀌었다. 휴일날 몰아보거나 다시 보기로 트렌드가 바뀌었다. 본방을 안 보니 시청률은 떨어지고 광고수익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KBS 3년 누적 적자가 1,038억, MBC 3년 누적 적자가 2,283억으로 발표가 되었다. 이런 결과는 종합편성채널 같은 게 생기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예견을 했고 경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많이 했다. 공교롭게도 결과를 놓고 보면 KBS와 MBC가 여러 전문가들을 용한 점쟁이로 만들어버린 모습이 되어버렸다. 세상이 바뀐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 세상은 바뀌고 있다. 방송사만 바뀌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열씨구당을 보고 있다. 송가인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고, 송가인은 아시다시피 진도사람이다. 오래전부터 송가인을 아시던 분들이 광주MBC에 오래전에 출연을 많이 했던 모양이다. 열씨구당 2화, 5화 같은 경우 송가인의 노래의 뿌리를 찾아서 풍부한 자료를 집어넣어 분석이 잘 돼 있다. 진행자와 출연자가 그것을 학자처럼 디테일한 분석을 지루하게 하지 않고 재미있는 입담으로 풀었다. 이런 전통적인 일을 현재에 접목시켜서 송가인 신드롬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클릭 수가 예상되고 이게 상당한 수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자면 서울MBC가 제작을 했는데, MBC 드라마에 대한 예고방송을 할 때 자막에 '설레임이 쏟아진다 MBC 드라마'라고 한다. 설레임은 틀린 말이고 설렘이 표준어다. 광주MBC가 전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 최선희 부위원장 :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다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라디오칼럼에 김요수 위원님 목소리를 곁들여 보면 상당히 보이스 칼라가 구성지게 내용을 잘 담아내기도 한다. 오늘도 역시 의견도 다양하게 피력해주셨다. OTT와 자막 관련해서는 타겟층을 어떻게 잘 잡아서 구성할 것인지 분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태진 위원 : -<시청자가 만드는 TV>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 박미자 위원님 의견과 비슷하다. 시청자가 직접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때로는 어설픈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기존 방송과는 차별점이 된 것 같다. 오히려 감동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모집 루트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홈페이지에는 2014년도 4월달을 마지막으로 참여 신청 게시판에 글이 끊겨있다. 이왕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홈페이지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것도 연계가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 대학교 영상 동아리라든지 고등학교 방송부라든지 다 있지 않나. 그런 곳과 연계해서 일부의 콘텐츠들은 지역의 영상 꿈나무인 그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유튜브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요즘 표현으로 SNS 채널들은 소위 감성이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MBC 페이스북, 인스타 채널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글귀가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3만 명 가깝게 팔로워가 있고 인스타그램은 시작단계인 거 같은데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는 SNS 감성이 필요하다. 광주MBC 내에도 그런 감성을 가진 분이 많을 텐데 방향성, 변화를 주면 충분히 활성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

○ 구제길 위원 : -뉴스를 많이 보고 있다. 뉴스는 보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 형식도 아주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광주MBC를 비롯한 지역MBC는 지역의 토착 비리나 지자체 검증 등 생활 밀착형 뉴스를 아주 잘 전달하는 등 내용면에서 충분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룸이나 조명, 분장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서울MBC 등 중앙 방송에 비해 매우 열악해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것 같다. 광주MBC의 경우는 특히 상황이 더 열악한 것 같다. KBC는 최근에 사옥을 이전해 와이드한 뉴스룸으로 기자 출연이나 전문가 출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광주MBC는 협소한 뉴스룸이나 전문가나 기자 출연 시 화면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광고상황 등 경영여건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꼭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뉴스 진행자가 부족한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달 뉴스 모니터를 많이 해봤는데 아침 <뉴스투데이> 진행자가 오후 5시 라디오 뉴스 등 하루종일 책임지고 있었다. 부족한 인력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아침 <뉴스투데이> 경우에 30분 정도 남자 아나운서가 전달을 하고 있는데, 두 명의 남녀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C와 많이 비교가 된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유튜브 등 그쪽으로 광고가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지역민과 가장 밀착된 뉴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언제나 MBC는 내 친구라고 한다. 저도 MBC를 사랑하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도 되고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다.

○ 최선희 부위원장 : -일괄적으로 보도국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다.

○ 조숙경 위원 : -저도 뉴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지난번에는 세트에 관해 얘길 나눴는데 공통점이 있다. 라디오 뉴스를 주로 듣는데 동일한 내용이 몇 번 반복이 된다.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다. 나쁜 뉴스도 계속 들으면 거슬리는 측면이 있다. 15일, 16일 제가 이틀간 뉴스를 들어보니 동남아 노동자 폭력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었다. 외국에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괜히 피해를 당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가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시민들이 동남아 노동자들을 보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대상으로 느끼기가 쉽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뉴스 골라주는 남자'라는 코너가 있다. 매일 아침에 중앙뉴스와 지역뉴스를 3꼭지 정도 선별해서 전달해준다. 저는 이게 아침에 신선하다, 깨워준다 그런 생각이 들어 매우 좋은 코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요일에 김대중 대통령을 말하는 코너가 있다. 제가 몰랐던 내용이어서 그런지 한국의 정치사를 이야기 해주셔서 방송의 품격을 높인다고 생각을 했다.

○ 최선희 부위원장 : -조숙경 위원님께서 주셨던 라디오 뉴스와 <황동현 시선집중>, 고

김대중 대통령을 말한다라고 하는 꼭지 내용이 훌륭했다. 여러 면에서 라디오에 관한 것들도 상당히 잔잔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실감한다.

- 이철우 위원 : -저는 창사특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는 전공이 이쪽이라서 유심히 기대를 가지고 봤다.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고, 3탄이 기획되어 있는데 잘 만들어졌다.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참고를 해주길 바란다. 시가 산업이나 도구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저는 시는 산업의 기반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의 기반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다. 거기서는 대개 정책 입안자들, 정치가들만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듣기에는 미묘한 부분이 있었다. 박미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결국 자기 얘기만 하고 말았다. 현장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전체가 결국 앞으로 미래는 엄청 좋아질 것이다라는 핑크빛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현장 인터뷰 비디오를 보여준다든지 해서 나온 발언자들, 토론자들 얘기의 방향을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에서 광산업을 할 때와 똑같이 시작 포인트다.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굉장히 투자할 것 같이 했지만 나중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 부분 전례를 찾아서 기존의 산업하고 현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탐사보도 비슷하게 해서 이 다음 얘기를 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는 높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 그랬지만 분위기가 너무 처져 있다. 최근에 대담을 보면 트렌드가 게임 스타일로 간다. 조금 프리랜서가 보고를 하고 하더라도 약간 사람이 흥미를 끌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를 업시켜 가는데 너무 엄숙한 분위기 아닌가. 좀 더 재미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좋은 프로그램이 일요일 아침에 한다. 심각하게 시청률을 생각한다면 시간대를 바꿔보는 건 어떤가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다. 만약 이걸 못 바꾼다면 재방송을 해서라도 널리 알릴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프로그램 구성상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말이다. 그 다음에 뉴스에서 언급이 돼서 저도 알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시청자가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시간대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 최선희 부위원장 : -조목조목 의견을 잘 주셨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지만 이요숙 의원께서 여러 차례 홈페이지에 관한 것 얘기를 했는데 잘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빨라지고 안정적이면서 피시 홈페이지까지 좋다고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드리겠다. 보도국에 관한 <김낙곤의 시사분석>에 관한 말씀을 마저 드리고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저는 9월 28일에 보았던 내용인데 총선 디데이 7개월 남아서 총선 첫 스타트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2020 호남의 선택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다. 정치언론 3인방이 아주 신랄하게 의견을 내왔다. 추석 민심에 관한 것들과 함께 양분된 진영논리에 대한 얘기까지 그때까지 조국의 사태가 뜨겁게 불붙어 있어서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단계여서 그럴 만했다. 그리고 대안정치 연대는 어디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여기에 여당 지원자들에 대한 대결 구도까지 상당히 다양한 것을 막 쏟아내 주었다. 그래서 8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격전지에 관한 것과 전남에 관한 것까지 다양하게 훑어보고, 대선가도는 어떻게 갈 건가 등 미래에 관한 것을 다루다 보니 상당히 숨 가쁘게 프로를 진행했다. 아마 KBS는 1TV, 2TV 있기 때문에 1방송에서 저녁프로를 하이라이트 방송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성의를 가지고 본방을 사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요즘은

토론도 토크콘서트로 표현을 하고, 원가 점차 형틀에 매이는 것보다 편하게 의견을 쏟아낼 수 있는 방향의 코드가 부드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시사토론 프로그램 역시 자꾸 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같이 드린다.

-<라디오칼럼>에서 조국 사태에 관한 것을 보고 조선대학교 이동순 교수의 10월 8일자 라디오칼럼은 가녀린 목소리면서 이육사의 시를 가지고 난상토론이 되어진 사태를 절묘하게 절규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줬다. 내용의 핵심은 '내가 들개에게 길을 비켜줄 수 있어도 달려드는 표범에게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육사의 시를 인용하면서 다시 켜든 100만의 촛불은 아직 다 타지 않은 이유를 상당히 절도있게 잘 끌어가 주었다. 이렇게 라디오는 보이지 않는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상상력이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잘 포개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끊임없이 TV와 라디오를 시청하시고 청취하면서 다른 내용이 오늘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각 부서별로 답변 및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해달라.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시청자가 만드는 TV>는 참여 신청 게시판에 2014년 이후로 올라오지 않는 것은 접수와 문의는 전부 다 메일로 하고 있어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학교 방송부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 <시청자가 만드는 TV>는 시청자가 제작 주체가 되어 미디어를 통해 자기표현을 하면서 시청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 시청자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수를 하면 심사를 통해 적격성을 판단하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이 있다. 예전보다는 완성도가 뛰어나서 그중에 눈에 띄는 작품들이 있다. 그리고 <오매 전라도> 촛불집회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은 이미 제작진에게 전달했고 추가로 더 전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진행자 부분도 주의하도록 하겠다. 촛불시민이 꾸려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 내용을 취재를 하다가 이쪽 주민들과 가면서 동행 취재를 했던 부분이 있었다. LTE는 현장성 강화를 늘리고 있는데 때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간헐골 영화제는 LTE 현장 연결 후 이번 주 토요일 날 취재를 하기로 했다. 다음 주에 방송할 예정이고 <오매 전라도>에서는 LTE 연결, 꼭지제작, 초대석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관련해서는 지역의 자산에 대한 안내와 공감에 집중하고 있다. 순천대 박기영 교수님이 갯벌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이탬이라든지 엇그저께 방송한 전남대 김길용 교수의 미국 농부들 20여 명이 3박 4일 동안 이쪽 지역에서 투어하는 것을 다뤄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말씀도 드린다. 그리고 <핑크피쉬>는 방송을 한번 하고 MBC플러스, MBC에브리원, MBC 본사에 전국 방송을 신청을 해놓고 있고 로컬에서도 재방송을 통해 노출빈도를 높이겠다. 향후에 10편을 방송하고 나면 서울 흥대 부근에 팝업 레스토랑을 열 생각이다. 그 다음에는 종합토론을 하여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조숙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황동현의 시선집중> 앞에 뉴스 읽어주는 남자 그 부분은 김두식 아나운서께 전달했고 아침에 큰 힘을 얻었다고 한다. 감사드린다.
- **한신구 보도국장** : -저희 언론의 딜레마이기도 한 게 어디까지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부분이다. 모방범죄를 없애야 하는 것에 대해 항상 동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는 하루 단위의 일을 하는 뉴스다. 그런 부분에서 주요 뉴스가 터지게 되

면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세한 부분까진 저희도 안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취재를 하는 여건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선 포털사이트에서도 이미 모든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특히 사건 기사를 중심으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다. 이나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R&D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감 기사를 쓸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지 않나. 의원들은 그런 부분들만 추려서 내기 때문에 열악한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부정적인 말을 해야 하니 항상 안타까운 면이 있다. 그런 걸 아이টে므로해서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저희가 뉴스에서 반영하려는 부분에서 나오다 보면 너무 부정적인 게 많이 나간다 하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줬으면 한다. 광주역이나 전남대 주변 부분은 융복합,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에 보도로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린다. 주로 말씀해주신 게 창사특집 토론이었으니 짧게 말씀드린다. 4, 5개월 정도 기획을 했는데 3가지 분야 중 2가지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시와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모르고 추진하시는 분들은 조각조각 아는 부분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아직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특히 시의 같은 경우 광주시가 대한민국을 첫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무도 평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되겠지만 지금은 시 모델 자체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기획하면서도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지, 그런다고 토론을 안 할 수 없는데 고민은 하고 있다. 이번 토론은 당위성이나 약간의 청사진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탐사보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시 선진국으로 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 시키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진행자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 아까도 프리앵커를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다. <시사본색> 같은 경우는, 광주MBC가 55년인데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토론시간대는 그 시간이었다. 광주MBC의 토론이 가장 적합한 시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희 토론을 보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보시는 거로 각인이 되어있다. 시간대를 옮긴다고 하면 정체성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30년 이상 해왔던 그 시간대를 지키는 게 좋겠다 해서 하고 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녹화를 해야 그 한 주 이슈를 가지고 하게 된다. 월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에 하면 시의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많다. 그 면들을 다 고려해서 말씀드린다.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 -플랫폼이 영향력으로 따지면 유튜브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콘텐츠 중심이 유튜브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실제로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채널 플랫폼 영향력이 떨어져 있고, 유튜브가 거의 독보적인 1위 형태다. 전략을 유튜브 중심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팔로우가 3만 명 정도 되는데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뉴스를 소비하는 플랫폼으로 아직 유효하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 저희가 전략적으로 공을 못 들이고 있는 이유가 수익모델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플랫폼별로 콘텐츠 전략을 짜야 하는데 그러려면 콘텐츠 제작 방식 자체를 별도로 다 해야 한다.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 채널 전략상 리턴이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리턴이 없다. 그럼에도 페

이스북은 뉴스 플랫폼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저희가 고민이다. MBC 페이스북 이용자 대부분 80%가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다. 그 부분에 저희가 공략 포인트가 있다고 본다.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페이스북 플랫폼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인스타는 사실 미디어와 맞는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드문드문 콘텐츠의 홍보창구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김요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열씨구당 같은 경우 저희가 열씨구TV랑 국악채널에서 하는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다. TV 방송에는 나가지 않고 별도로 제작하는 유튜브 전용 국악 콘텐츠다. 그래도 조회수가 9만 회 이상 나오는 게 있다. 전국적으로 채널 중 국악을 다루는 전문채널이 많지 않다. 시장 자체는 작지만 독보적, 독점적으로 갈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향후에도 공들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기존 콘텐츠를 가지고 재가공을 하는 형태로 했는데 열씨구당을 비롯해서 몇 가지 디지털 전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니 이걸 활성화 하려고 노력 중이다.

- 최선희 부위원장 :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내다보니 답변도 상당히 길어지고 더 확대시켜 토론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끝.